

# 기독교사회복지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존재 이유와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의 필요성

강상우(백석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 박사과정수료)(대학원 2-4)

##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의 다양한 사회복지'개념'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교회나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현장이나 학문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념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연구자들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반응의 정도, (2) 주류 학문(논리실증주의)에 대한 편승의 정도, (3) 연구자들의 학문적 기반의 다양성 때문에 교회나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된다. 교회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있어서 기독교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존재는 사회복지를 교회에 정착시키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즉 사회봉사와 사회목회, 사회선교와 같은 (실천)신학에 근거한 개념들은 기독교사회복지가 이념적으로 신학적 이론(성경적 세계관=기독교세계관)에 충실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교회사회사업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신학적 이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복지의 실천기술과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수용(즉, 신앙과 사회복지의 통합)의 필요성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기실(其實),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이 이미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신앙과 학문에 통합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를 狹義의 消極的 基督教社會福祉라 칭한다).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사회복지의 통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사회복지실천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광의의 기독교사회복지가 필요하다. (1)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실천 영역의 확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사회복지운동, 글로벌 사회복지 등), (2) theoria와 Praxis의 실질적 연계의 필요성, (3) 지식의 종합을 통한 전인적 인간이해의 필요성의 대두와 더불어, (4) 최적 경험과학이라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징 등은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를 교회에 정착시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기독교사회복지 개념 스펙트럼들이 지니는 장점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기존의 협의의 소극적 기독교사회복지 개념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는 길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광의(廣義)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사회목회, 사회봉사(디아코니아), 사회선교, 교회사회사업,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

## I. 머리말

오늘날의 화두는 당연히 복지다. 복지라는 단어로도 부족해서 웰빙(well-being)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현실적 관심<sup>1)</sup>과 더불어 교회성장에 대한 과거의 반성적 자세<sup>2)</sup> 등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이 현실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현실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관련 제(諸)용어들이 사회복지 학계에서나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황순환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용어가 여러 분야에서 각양각색(各樣各色)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중요하다”고 한다(황순환, 2001: 287). 이준우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정의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혼선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목사[역자인 이준우]로서 청각장애인 목회를 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사로서 교회의 자원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 실천을 10년 이상 해 오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다. 내가 하는 일이 사회복지인지, 사회선교인지, 아니면 특수 선교 혹은 특수목회인지 도무지 쉽게 알 수 없었다(Garland, ed., 2001: 7 ‘역자 머리말’).

사회복지 개념과 관련하여 정립되지 않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현실은 박종삼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면에서 사회복지를 교회에 정착시키는 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박종삼, 2005: 2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개념(다양한 spectra)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기독교사회복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즉,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사회복지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 관련 용어에 대한 다양한 개념 스펙트럼(spectra)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과거의 기독교사회복지개념을 넘어선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 개념의 필요성을 대해서 논구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이유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기반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학문적 기반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노력과, 주류학문에 편승정도 때문이

---

1) 최근 한국복음주의 교회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으로 사회복지가 중심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마치 오늘의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가장 타당한 기독교적, 교회적 실천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 내에 사회복지 혹은 사회봉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의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하거나, 장애인부서 등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더 나아가 복음주의 교단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대다수 신학대학에 예외 없이 사회복지학과가 신설, 운영되고 있다. 가히 사회복지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형상에 있다.”(김동춘, 2003:305-306).

2) 교회의 신뢰성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상실된 한국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해가는 길은 무엇일까? 그 길은 분열된 신앙과 행동의 통일성, 분열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통일성, 깨어진 복음화와 인간화의 통일성을 회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본다. 한마디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봉사의 사명을 회복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정원범, 2005:223).

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지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사회복지학이 미국중심의 소셜워크(Social Work)와 동시에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창적 형태로 발전한 사회복지학임을 고려할 때,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기독교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지는 장점을 포괄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Christian World-view)의 관점에서 소셜워크(사회사업: social work)와 사회정책(social policy)을 포괄하는 광의의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기독교사회복지 관련 다양한 개념 스펙트럼

### 1. 다양한 스펙트럼의 존재이유

현실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관련 사회복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이는 박종삼 교수다. 사회복지관련 다양한 개념 스펙트럼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박종삼은 관련 용어들을 ‘교회’와 ‘기독교’라는 범주와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목회’, ‘사회선교’ 등의 범주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의 용어들의 조합을 통해 기독교사회복지, 교회사회복지, 기독교사회봉사, 교회사회봉사, 기독교사회목회, 기독교사회선교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 중에 선교(宣敎)와 목회(牧會)라는 용어는 그 용어 자체가 이미 기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회목회’나 ‘사회선교’는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봉사’라는 단어들과는 달리 ‘기독교’나 ‘교회’라는 단어가 붙지 않고 ‘사회선교’, ‘사회목회’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박종삼, 2002:431-454; 박종삼, 2005:233); 양희택, 2003:117 참조). 위의 박종삼 교수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다면 왜 기독교사회복지 관련 용어에 다양한 개념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

3) 박종삼(2005:23) 교수는 “일반적으로 이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기독교사회복지(christian social welfare)라는 용어를 거시적 차원에서 사용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회사업을 표현할 때는 교회사회사업(church social wo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1) 연구자들의 학문적 기반의 다양성

먼저 연구자들의 학문적 기반에 따라서 선호하는 용어<sup>4)</sup>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해서 연구자의 학문적 기반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먼저, 사회사업과 사회목회, 사회선교, 사회봉사(diakoni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서 우리는 연구자들의 과거의 학문적 기반이 신학(실천신학)에 있는지 아니면, 사회복지학이라는 사회과학에 그들의 학문적 기반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회사업(소셜워크: social work)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신학적 기반보다는 사회복지학이라는 사회과학에 중심기반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거나 그러한 대학의 출신이거나, 그러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 비록 연구자들이 기독교계통의 대학교를 나오고, 또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다하더라도 말이다. 그와 반대로 사회목회, 사회선교, 사회봉사(디아코니아) 등의 개념을 선호하는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 있어서 기반이 되고 있는 학문이 사회과학보다는 신학(실천신학 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 경우 연구자 대부분은 실천신학에 기반을 둔 연구자로 신학교 계통의 출신이거나, 그런 곳에서 가르치는 연구자일 것이다.

## (2) 주류 학문에 대한 편승의 정도

교회사회사업과 기독교사회복지의 용어 사용의 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주류 학문의 편승에 대한 태도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 ‘교회’라는 단어와 ‘기독교’라는 단어에 대한 주류학문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자. 현 주류학문은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방법론적 연구를 학문적으로 기반하고 있다. 주류학문은 과학화(계량화, 정량화, 수치화)라는 이유로 학문의 세계에서 영적, 종교적 영역을 추방하였다. 즉, 주류학문의 학문적 방법론이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방법론이 되면서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종교’가 학문의 영역에 자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논리실증주의로 대변되는 주류학문 세계에서 그것도 다른 종교가 아닌 가장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기독교’가 학문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과학화의 길을 모색하거나, 종교적 색채를 최소화 한 가운데에서 주류학문의 용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전략에서 ‘기독교’라는 종교적 의미의 용어보다는 ‘교회’라는 사회학적 용어

---

4) 학문을 함에 있어서 용어 해석의 경우에도 연구자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학과 관련해서 empower의 단어 해석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mpowerment’는 이념적 배경과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신자유주의에 근거하여 치료, 상담 및 교육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역량강화’ 또는 ‘능력고취’로, 급진사회주의의 이념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 제거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세력화’로, 그리고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자조와 개혁을 강조하는 경우는 ‘권한부여’의 의미로 사용된다”(Adams, 2007:19 1번 역주).

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추상적인 이념이라고 한다면, ‘교회’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이념을 현실화시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유장춘, 2002:90). 또한 ‘사회기관으로서의 교회’(Church as a Social Institution)는 ‘기독교’와는 다른 성격에서 집단이나 조직으로 사회학적인 분석의 대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다른 조직(집단)과 같은 차원에서 주류학문의 연구와 분석영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교회사회사업가인 갈런드(D. Garland)가 ‘교회사회사업’(church social work)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면서도 기독교사회복지(Christianity social welfare)라는 개념을 부인한 것(Garland, ed., 2001:32)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용면에서 갈런드도 교회사회사업이 신학적 토대를 통한 사회사업임을 강조하면서도(기독교정신과 사회복지실천을 강조, Garland, ed., 2001:143) 단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기독교의료사업과 같은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사회복지(사업)이라는 용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이다.<sup>5)</sup> 이는 갈런드가 속한 미국에서 그것도 사회복지학에서 양적방법론 중심으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녀가 처한 학문적 환경을 짐작해 볼 때, 왜 갈런드가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갈런드의 이러한 주장을 배타적 종교성이 강한 기독교사회복지라는 개념보다 교회사회사업이라는 개념을 선호하는 국내의 연구자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3)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반응의 정도

사회복지 개념관련 다양한 스펙트럼의 존재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기반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학문적 성격은 무엇인가. 기독교사회복지학의 명칭이 ‘기독교’와 ‘사회복지학’이라는 단어의 혼합임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과 주류학문의 통합이며, 이는 신앙의 기반이 되는 신학과 주류학문의 과학적 방법론의 기반이 되고 있는 과학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학’이라는 ‘인문학’과 ‘사회복지학’이라는 ‘사회과학’의 통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선교, 사회봉사(diakonia), 그리고 사회목회라는 용어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기독교의 색채가 있다는 박종삼의 지적에서처럼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와의 통합을 피하는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먼저 사회선교라는 개념은 선교의 목표를 위해 사회복지와 선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형태다. 사회목회는 목회의 실천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목회실천을 위해 목회

5) 갈런드가 기독교사회복지(사업)이라는 개념을 부인하는 것은 칼 포퍼(Karl Popper)의 과학은 “앎의 주체가 없는 지식”(Popper, 1972)이라는 정의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Michael Ruse가 지적한 것처럼 “그[Karl K. Popper]가 뜻한 것[과학은 앎의 주체가 없는 지식]의 의미]은 좋은 과학은 개인을 초월한다는 것이었다. 과학은 객관적이다. 따라서 유대과학이나 페미니스트 과학 같은 개념은 틀렸다고 보다는 모순된다.”고 포퍼가 인식하기 때문이다.(Ruse, 2007: 204).

(학)와 사회복지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봉사도 디아코니아의 목표를 위해서 사회복지와 디아코니아 신학을 통합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봉사의 경우 독일의 디아코니아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디아코니아학과 사회복지학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교회사회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독교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주류학문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것을 짐작한다면, 이 또한 신앙과 과학적 방법을 통한 사회사업의 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사업(social work)을 중심으로 사회조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교회를 통합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는 갈런드<sup>6)</sup>와 같은 미국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박종삼은 종교사회학의 입장에서 교회사회사업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는데(박종삼, 1996:7-24)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이라는 용어는 기독교라는 종교체제 즉 믿음(신앙)체제와 사회복지학과의 통합을 모색하는 시도(유장춘, 2002:89)인데, 이는 기독교세계관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무엇보다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을 가진 신칼빈주의(Neo-Calvinism, A. Kuyper 등)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기독교와 사회복지와의 통합을 모색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표 1〉 기독교사회복지 관련 용어 스펙트럼에 따른 통합의 모색		
용어	통합의 강조점	영향
사회봉사(Diakonia) 사회선교 사회목회	신학 (theology 특히, 실천신학)	독일 (특히 디아코니아의 경우)
교회사회사업	사회사업 (social work)	미국 (D. Garland)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세계관 (Christianity World-view)	네덜란드 신칼빈주의(Neo-Calvinism)

6) 갈런드의 교회사회사업의 정의를 보면, 그녀가 사회사업(social work)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갈런드는 교회사회사업을 “교회의 원조 아래 진행되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실천이다”(Garland ed, 1992:9)고 정의한다.

## 2. 스펙트럼들이 지닌 장 단점

### (1) 디아코니아(봉사신학), 사회목회, 사회선교

① 사회복지선교(사회선교: Social Mission)는 말 그대로 선교학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의 접근이다. 사회복지선교는 교회의 사회봉사(사회사업, 사회복지 등)를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선교신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통전적 선교모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선교적 기능에 전도와 봉사를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복지선교에 대한 다음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다.

사회선교는 교회의 사회봉사(사회사업, 사회복지 등)를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개념으로 선교신학에 강한 영향을 받은 개념이다(전혜정, 2004:234).

전도는 복음의 선교이고, 봉사는 선포된 복음의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다(박종삼, 2005:24). 그렇다면 사회복지선교의 개념이 지니는 장점은 무엇인가. 사회복지를 선교(전도)의 차원에서 선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사회복지=선교(전도)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선교(전도)의 수단’이라는 등식으로 사회복지를 환원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에 ‘기독교사회복지’와 ‘사회복지선교’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② 기독교사회목회(사회목회, Christian Social Ministry)란 실천신학의 한 분야라고 한다(Watkins, 2003:3 ‘역자서문’).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교회의 목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신학적 각성(覺醒)에서 기독교사회목회 신학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박종삼, 2005:24). 기독교 사회복지사역(Christian Social Ministry)은 “신앙의 공동체 내부 뿐 아니라, 외부의 사람, 가정, 집단, 그리고 공동체들의 영적,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관계적 안녕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을 나타냄으로 복된 소식을 선포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속된 개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조직화된 과정”이라고 한다(Watkins, 2003:17). 데이비스(C. Anne Davis)는 기독교사회목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정의를 추구하라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 의하여 실천되는 활동을 일컫는다(Davis, 1983:523-536; Garland ed., 2001:25 재인용).

그렇다면 사회목회라는 개념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 이는 목회실천의 연장선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한다는 점에 장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목회의 개념의 경우에도, ‘목회(학)=기독교

사회복지'가 아닌 것처럼, 개념적으로나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사회목회(social ministry)'와 '기독교 사회복지(Christian Social welfare)'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기독교사회봉사는 디아코니아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복지와 디아코니아를 결합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박종삼은 디아코니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봉사(디아코니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하는 봉사를 말한다. 디아코니아라는 개념 자체에는 기독교적 봉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비록 봉사의 내용이 일반사회의 그것과 같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동기가 부여된 것을 봉사(디아코니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종삼, 2005:26).

사회봉사신학의 성경적 기반을 굳게 두고 오랜 교회사의 맥락에서 봉사신학을 확립시킨, '디아코니아 신학'은 독일 교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특히 독일에서 연구 활동을 해온 우리나라 신학자, 사회복지학자, 사회과학분야의 학자들(예, 이삼열, 황금봉, 김덕환 등)을 통해 독일교회의 디아코니아 신학이론과 실천모델 등이 소개되었다. 이들 연구자들을 통해 독일의 디아코니아 신학자들(T. Fliedner, F. Von Bodelschwingh, K. T. Daiber, Reinhard Turre)의 논문들과 저서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박종삼, 2005:25). "독일의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는 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카리타스 연구소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디아코니아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실천신학 부분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구는 신학중심의 이론적 주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김덕환, 2002:508)고 한다. 이는 디아코니아가 바로 실천신학의 한 부분에서의 사회복지로의 접근(통합)의 시도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디아코니아(사회봉사)라는 개념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 디아코니아의 개념이 가진 장점은 역사적 측면에서 기독교와 사회복지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부분 독일이라는 나라에 한정되지만 기독교의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사회복지로의 연결되었고, 또 발전되었는가를 역사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 디아코니아의 역사적 과정을 김동춘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그는 디아코니아의 역사적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a) 가장 초기단계의 디아코니아는 가족 간의 돌봄과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caritas)행위에 의한 '개인적 디아코니아'(personale Diakonia)의 단계. (b) 그 후에는 국가교회의 시기에 교회설립의 구빈시설을 중심으로 교회의 직제와 재원을 통한 조직적인 봉사형태로서의 '교회적 디아코니아'(kirchliche Diakonia)의 단계. (c) 마지막으로 오늘의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이웃 돌봄의 교회적 책임과 구조로부터 독립된, 국가적 책임과 사회조직적 형식으로 변모된 '국가적 디아코니아'(staatliche Diakonia)의 단계로의 이행되었다고 한다(김동춘, 2003:316).<sup>7)</sup> 김동춘의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 역사적으로 기독교



### [그림 1] 사회복지의 발전 형태와 과정

살림과 디아코니아 ⇨ 자선 및 구호 사업 ⇨ 자선조직협회(COS) 활동 ⇨ 사회사업  
⇨ 사회복지 ⇨ 복지국가 ⇨ 기독교사회복지 ⇨ 하나님의 나라 확립

자료: 최무열, 2004:43

교의 디아코니아와 현대의 사회복지 사이에는 자연적인 연결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성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최무열도 [그림 1] 사회복지의 발전 형태와 과정을 통해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실천신학에서 사회복지와 통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개념들, 즉 디아코니아, 사회목회, 사회선교 등의 개념들과 같이 실천신학에서 사회복지와의 관계(통합)를 맺으려고 하는 개념들이 지니는 장 단점들은 무엇인가. 다음 인용문들에서 실천신학과 관계를 지니는 관련 사회복지 용어들이 지니는 장 단점을 찾을 수 있다. 앞의 유장춘의 인용문은 장점에 대해 말해 주고, 뒤의 최성재의 추천서는 단점을 말해준다.

오늘의 기독교가 사회의 다른 어떤 종류나 집단보다 사회복지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서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기 때문이다(유장춘, 2002:88).

사회복지사역은 단순한 신학적 및 성경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회복지 사역의 역사적, 신학적, 성경적 및 철학적 근거를 확실히 이해하고, 심리학적 및 사회복지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줄 알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Watkins, 2003:11 ‘최성재, 추천서’).

실천신학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은 바로 기독교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성경적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회복지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반대로 실천신학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방법이 지니는 문제점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천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있어서 이들 개념들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접근 즉 실천 현장에서의 실천에 있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들이 지니는 한계는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천기술과 실천방법 등의 적극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7) 독일의 경우 디아코니아는 사회복지역사에 있어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간의 연속성과 함께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레너는 독일교회의 사회사업의 개입과정을 3단계로 구분(Lehner, 1997)하였으며, 이를 참조하여 강영실(2005:275-303)은 4단계로 구분하였다.

## (2) 교회사회사업

교회사회사업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교회사회사업은 “교회의 원조 아래 진행되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실천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유장춘, 2002:90) 최성재(1994:253)는 “교회사회사업이란 교회가 주체가 되어 자체 교회 내의 사람 및 교회 밖의 사람들인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의 당면문제나 공통적인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획적이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갈런드(Diana R. Garland)는 “교회사회사업은 교회라는 조직의 원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더 나아가 “교회사회사업이란 신학과 과학에 토대를 둔 전문 분야로서의 사회복지실천이 통합과 분리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교회사회사업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Garland ed., 2001:9; 최무열, 2004:40 인용). 손병덕은 “교회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교회가 주도하여 지역사회 혹은 국가의 제반사회복지적 문제들을 해결 혹은 해소하는 데 주체적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형태를 일컫는다.”라고 정의한다(손병덕, 2007:171).

위의 연구자들이 교회사회사업의 정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교회사회사업의 정의들은 ‘실천의 장으로서의 교회’, ‘원조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 위의 교회사회사업의 정의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의 영역을 실천의 장으로서의 교회로, 원조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로 한정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이 ‘교회라는 영역’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교회사회사업이 사회복지의 실천분야의 하나로서, 학교사회사업이나 교정사업 등과 같은 위치에서 논해질 수 있는 소지(素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다음의 주장들을 보면 교회사회사업의 영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종삼은 “교회사회사업은 사회사업의 다른 특수영역들(예를 들어, 의료, 정신의료, 교정, 학교)에 비해 그 학문적 기반이 매우 빈약한 실정”(박종삼, 2003:9-10)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위의 박종삼의 지적은 교회사회사업의 범주를 의료사회사업이나 정신의료사업, 교정사업 등과 같은 위치에서 상호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박종삼 외(2004) 등이 공동집필한 『사회복지개론』을 보면 형식적인 면에서 교회사회사업의 영역이 학교사회사업 등과 같은 영역 수준에 위치시킴으로서 교회사회복지의 영역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실천현장에서의 사회복지실천 주체들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주체는 교회가 중심이 되지만 교회 외에도 성도 개개인이나, 기독교NGOs & NPOs, 기독교연합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표 2> 박종삼 외 공저 「사회복지학개론」의 목차

제1부: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제2부: 사회복지의 실천분야	제3부: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	-----------------	-------------------

제1장: 사회복지의 개념 제2장: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과정 제3장: 사회복지의 이론 제4장: 사회사업실천 제5장: 사회복지행정	제6장: 사회보험 제7장: 공공부조 제8장: 아동복지 ..... 제17장: 학교사회사업 제18장: <b>교회사회사업</b> 제19장: 교정복지 제20장: 자원봉사	21장: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 찾아보기
---	---	-----------------------------

자료: 박종삼 외, 2004

그렇다면 교회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지니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학문의 현장에서 교회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실익(實益)은 무엇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먼저 학문에 있어서 과학적 실증주의의 세계관에 입각한 오늘날의 주류학문에서의 종교의 배제로 인한 ‘기독교’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어느 정도 ‘교회’라는 용어로 순환시킬 수 있으며 또한 “사회기관으로서의 교회”(Church as a Social Institution)를 사회학적인 분석(Moberg, 1984 참고)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주류학문으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교회사회사업이 ‘사회사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시적인 접근, 즉 social work에 접근을 목표로 한다면, 다른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개념에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실천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디아코니아, 사회목회, 사회선교 등과 같은 개념들이 지니는 단점인 사회복지실천 기술(art & technique)의 부재를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사회복지실천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신앙적 통합)을 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실익이 존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천현장에서 원칙적으로 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개인적으로 박종삼 교수가 교회사회사업을 교정복지나 다른 여타의 사회사업과 같은 위치에 놓고 기술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기독교를 배제하고 있는 주류학문의 세계로 교회사회사업을 끌어들이고 교회사회사업을 세인들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기독교사회복지가 지니는 단점인 사회복지실천 기술 등에 대한 적극적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노(老)학자의 학문적 경험에서 나온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3)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협의의 소극적 기독교사회복지)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sup>8)</sup>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신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기독교의 다양한 생

8) 신앙과 사회복지와의 통합을 추구하고자 한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를 ‘협의의 소극적 기독교사회복지’로 칭하고 본고에서 구별되는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을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라 칭하여 양자를 구별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협의’, ‘광의’의 개념을 학문의 영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Social Work(미시적 복지)와 Social Policy(거시적 복지)가 혼합된 형태인데, 기존의

명사원들을 동원하여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유장춘, 2002:90). 이재서는 편의상 자신의 논문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모든 노력”을 ‘기독교사회복지’ 혹은 ‘기독교복지’로 정의한다.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가지는 본래적 의미가 무엇이든, 그 속에 기독교 사회봉사, 기독교사회복지, 교회사회사업, 사랑의 실천, 구제사업 등등,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려고 한다.”(이재서, 2000:231-232). 박종삼은 “기독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독교적 참여 등 거시적 접근을 전제로 한다”(유장춘, 2002:105인용)고 적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독교적 조망, 즉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의는 양희택의 개념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사회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회사회사업이라는 개념은 사회사업 실천의 장으로서의 교회라는 기관 또는 조직과 사회사업의 전문성 재고, 실천 영역에서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광의의 기독교사회복지라는 용어의 개념 정의보다는 조금 더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양희택, 2003:118-119).

이는 유장춘의 지적처럼 교회는 기독교라는 종교적 범주 안에 포함된 영역이므로 교회사회사업은 기독교사회복지의 하위영역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를 논할 때에는 언제나 교회사회사업의 모든 내용이 기독교사회복지에 해당(기독교사회복지 > 교회사회사업의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되는 것임을 전제해야 한다(유장춘, 2002:93, <표 3> 기독교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 비교 참고).

이론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라는 개념은 기독교세계관에서 사회복지를 조망하는 것으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신앙과 사회복지의 통합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는 교회사회사업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사회사업의 개념이 지니는 장점인 사회복지실천 기술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즉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 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에 있어 심층적이고 적극적인 통합이 결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기술의 부재현상 등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이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교재들이 대부분의 임상적 사회복지실천기술에 대해서 신앙과 학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합을 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거나 기술(記述)은 하고 있더라도 용두사미적 기술에 지나지 않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

기독교사회복지의 미시적 복지인 Social Work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극’, ‘적극’의 개념은 신앙과 사회복지학의 통합에 있어서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는 통합을 말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류학문의 연구방법의 영향 등으로 인해 소극적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소극적 기독교사회복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고 본다. 이는 기독교상담심리학 등과 비교해 보면 기독교사회복지학이 통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학의 내용 면에서도 오늘날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운동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세계화의 과정에서 복지의 범주 등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거나 대응하고 있다하더라도 기독교사회복지학적 접근이 매우 소극적인 형편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학의 통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필요가 있고, 기독교사회복지의 내용과 범주 면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협의의 소극적 기독교사회복지에서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표 3> 기독교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의 비교**

		기독교사회복지	교회사회사업
공 통 점	근거	성서적 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	
	관점	일반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전반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활용한다.	
	주체	기독교인이 주체가 된다.	
차 이 점	범위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초점	기독교적인 신념체계를 중시	교회라는 실천현장체계를 중시한다.
	조건	행위자의 신앙적 특징에 따라 결정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현장	사회복지체제와 전체사회를 현장으로 한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현장으로 한다.
	자원	교회를 포함, 사회복지체제 자원 활용.	교회의 자원을 주로 활용
	정체	기독교인이 주체 또는 보조자가 된다.	교회가 주체, 비기독교인이 보조자가 될 수 있다.
	논제	동기와 철학, 목적이 중심	자원동원과 방법론, 조직적 체계가 중심

자료: 유장춘, 2002:91

### 3. 사회복지 관련 제(諸)용어와 기독교사회복지

앞에서 기독교사회복지 관련 개념 스펙트럼들이 지니는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독교사회복지 관련 개념들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비교, 일반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 개념들을 비교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왜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를 넘어선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1)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장인협(1996)은 사회복지라는 개념 속에 사회사업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고 사회사업의 개념에 사회복지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의적인 해석이나 용어의 정의만으로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규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이양 용어의 영향을 끼친 이념의 목표나 사회적 대상 및 기능 등을 고찰함으로써 양(兩)용어의 개념들을 파악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경향이나 강조점이 다르다는 인식(認識) 하에 두 개념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특징		
구분	사회복지	사회사업
어의적	이상(理想)면을 강조	실천(實踐)면을 강조
목적적	바람직한 사회	바람직한 인간
대상적	일반, 전체.	개별, 부분, 특정.
방법적	제도와 정책, 고정적	지식적 기술, 역동적
기능적	예방적, 사전적	치료적, 사후적

자료: 장인협, 1996:35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사회사업(social work)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회사업은 미시적(micro),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이에 비해 사회복지의 이념적인 측면, 제도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macro)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이는 홍금자의 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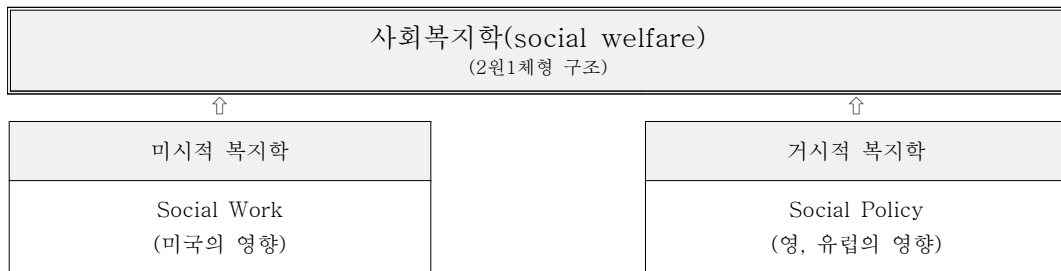
사회복지 이전에는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전문성, 과학성, 실천성을 특성으로 하는 ‘사회사업’은 영어의 social work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의 선행형태라 할 수 있다. 사회사업을 협의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회복지실천 체계를 의미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사업의 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문 분화되고 변화된 제도라는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회복지라는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사회사업을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회사업(social wo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홍금자, 2007:67).

프리드랜더와 앵트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급여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체계이다. 소셜워크(Social work)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이거나 혹은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 서비스이다. 사회복지의 전문 소셜워크보다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Friedlander & Apte, 1980:4-5; 김상균 외, 2007:48 인용).

학문분류체계상 소셜워크(social work: 일반적으로 사회사업)는 사회정책학(social policy)과 학문적으로 동격이며, 나아가 소셜워크와 사회정책학의 상위 범주가 바로 사회복지학(social welfare)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던 사회사업학에 유럽의 사회정책학을 첨가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복지학이란 명칭으로 신장개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이혜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일 뿐 아니라 학문적 성취라고 평가”하였다(이혜경, 1996:47; 김상균 외, 2007:76 인용).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역사적으로 미국 일변도의 미시적 학문 수입에서 벗어나 영미와 유럽대륙의 거시적 학문전통이 1980년대 이후 동시에 유입되어 공존하게 되었는데(오정수, 1997:136)<sup>9)</sup>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나라만의 사회복지학의 전통이 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징은 각 나라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의 경우 2원 1체형으로 학문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시복지학과 거시복지학의 2원체계를 이론중립을 추구하면서도 양자가 하나의 체계 속에 묶여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미시복지학의 학문적 뿌리는 미국의 소셜워크에서 찾는 반면, 거시복지학의 전통은 영국이나 유럽의 사회정책학을 참조한다고 한다”(김상균 외, 2007:83 이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다른 모든 유사용어(사회사업, 사회복지서비스 등)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단순하나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학은 사회정책과 사회사업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최경구, 1993:30 각주)

[그림 2]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구조



자료: 김상균 외, 2007:73-74 내용 참조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학이라는 개념이 2원1체형 구조<sup>10)</sup>로 사용

9) 오정수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규범주의, 비판이론과 해석과학의 입장은 거시분야에서 보다 많이 활용되고, 실증주의의 입장은 미시분야에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오정수, 1997:139)고 지적한다.

10) “..... 3자의 관계를 보면 소셜워크(social work: 미시복지학)와 사회정책(social policy: 거시복지학)은 동급인데 반해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소셜워크와 사회정책의 상위개념으로 분류된다”(김상균 외, 2007:73-74). 이러한 이유로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소셜워커만은 지칭하여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로 부르면, 사회정책 전문가(social policy expert)를 무엇으로 호칭하는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김상균 외, 2007:75).

되고 있다면, 즉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사회사업(social work)과 사회정책(social policy)을 포괄하는 용어를 의미한다면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도 미시적 복지학인 단순히 social work에만 치중하는 교회사회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 분야 등 여러 복지 분야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 복지학의 영역을 포함하는 기독교세계관의 조망을 통한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협의의 소극적 기독교사회복지)의 대응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서도 social work에 편중된 나머지 사회복지정책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실질적으로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에 대해 기독교세계관적 조망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일반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

일반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아래 <표 5> 일반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의 특성비교를 보면 왜 기독교세계관적 조망을 통한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다. 일반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사회복지도 일반사회복지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종교사회복지와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와 이들 개념과의 차이는 단순히 실천방법론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념적, 정신적 세계관의 차이에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11)</sup>

항목	일반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
지향점	개인적 구조적 요인에서 오는 인간 조건의 열악함을 극복 → 평등한 사회상의 실현(well being)	각 종교의 기본 가르침에 따른 인간 구원	기독교(예수)의 가르침에 따른 인간구원
	상황의 변화	존재의 변화	전인적 변화
원리	인간에 대한 존엄성, 평등, 및 사회연대의식의 실현	사랑, 자비 등의 실천 사상.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실천 사상.
동원	공적 자원과 민간자원의 동원	종교계 내의	기독교내의

11) 기독교사회복지와 타종교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Canda and Furman(2003)은 ‘가치 밝히기’(demonstrating value clarity)를 말한다: 서비스에 대한 종교적 관점들의 비교는 Canda and Furman(2003:265-266)의 <표 4.1>을 참조하라. 그리고 종교사회복지사업과 일반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태수(1999)는 “종교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각 종교의 기본 가르침에 따른 인간의 구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반사회복지사업과 구분된다.”고 한다.



수단		물질 인적 자원	물적 인적 자원
근간	사회복지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이론 및 전문지식	종교적 가르침	기독교(예수의)적 가르침
궁극적인 관심영역	생활의 조건을 구성하는 영역에서의 곤란해소(물질적 영역이 우선시 됨)	영적인 구원	전인적 구원
주된 대상	공공부조 대상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일반	가난하고 소외된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강점	사회복지실천 방법론	사회복지실천 동기	사회복지실천 동기.

자료: 이태수(1999)와 권경임(2004:20 재인용) 참조한 후 위의 틀에 맞게 기독교사회복지를 첨가한 것임.

일반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하면 외관상으로 실천의 원리 등이 “사랑의 실천”, “자선”, “인간의 존엄성”, “평등”, “정의”의 실현 등으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외관으로부터 좀 더 들어가 그 내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穿鑿해 보면), 일반사회복지는 무엇보다도 일반 주류학문이 추구하는 논리 실증주의적 가치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종교사회복지는 그들 자신들의 종교가 추구하는 종교적 교리(敎理)에 입각한 사회복지실천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독교사회복지의 일반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와 달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가르침(기독교세계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기독교사회복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본적 가치(價値)를 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일반사회복지나 종교사회복지와 큰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성에 입각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이들 일반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 등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구별되어진다.

오늘날 다원화 사회의 사회복지실천의 현실은 어떠한가. 다원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심도 있게 사정하고 여러 차원의 클라이언트체계의 복잡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율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김동배, 1993:109),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조직은 일반사회복지조직의 형태와 너무 달라서 전문사회사업가도 종교적 배경을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박종삼, 2002:444) 교리적 기반에 충실해야만 한다. 그래야지 다원화시대에 기독교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라든가, 또는 종교사회복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사회복지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他)사회복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와 다른 사회복지 개념을 비교해 볼 때, 일반사회복지가 가지는 장점은 사회복지실천 방법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독교사회복지와 같은 종교사회복지가 가지는 장점은 사회복지실천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온 기독교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에 비해 방법(실천기술 등)에서 빈약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더불어 기독교사회복지가 지니는 실천동기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의 추구일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의 조망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반사회복지의 실천방법 등에 대한 통합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광의의 기독교사회복

지학을 추구할 때에 비로소 일반사회복지학의 지니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지니는 장점을 살리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을 추구할 있기 때문이다.

#### 4. 사회복지의 제 개념 스펙트럼 그리드(spectrum grid)

앞서 살펴본 기독교사회복지 제(諸) 개념들과, 일반사회복지 관련 용어들인 사회사업과 사회정책, 사회복지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개념 스펙트럼들을 그리드에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념적 (ideal)	사회정책 social policy		사회봉사 diakonia	사회 선교 & 복지 목회
			기존 기독교사회복지	
이념과 실천의 통합	사회복지 social welfare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	
		교회사회사업 church social work		
실천적 (practical)	사회사업 social work			
	학문 (skill&tech)	학문과 신앙의 통합	신앙 (faith)	

[그림 3] 사회복지관련 용어 그리드(grid)

먼저, 사회복지관련 용어를 그리드(grid)에 나타내보면, 가로 축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정도를 나타내고 세로 축은 이념과 실천의 통합 정도를 나타낸다. 가로 축의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신앙적 성격이 강한 반면, 왼쪽에 위치한 개념은 학문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나타내고 축의 가운데 위치할수록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정도가 강함을 드러낸다. 세로는 용어의 실천(practical)이나 이념적(ideal)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로 축의 하단은 실천에 더 중심을 두는 경우이며, 세로 축의 상단은

이념에 중심을 두는 개념을 그리고 중간은 실천과 이념에 대해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은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이다.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가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에 있어서 교회사회사업이 가지는 장점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점이다. 반면에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광의의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며, 사회사업이 가지는 장점을 포용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의 독특성이 사회사업과 더불어 사회정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며 실질적으로 이념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指向)해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주장하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광의의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은 그리드에서 신앙과 학문의 실질적 통합과 더불어 이념과 실천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곳에 위치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범주에서 광의의 적극적기독교사회복지가 추구되어야만 한다. 즉, 실천과 이론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이루는 기독교사회복지를 추구해야만 한다.

### III.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의 필요성

#### 1. 사회복지 영역 확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가 필요한가.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먼저,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와의 조우(遭遇)를 들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운동 혹은 사회운동이 점차로,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하나로써 사회복지운동이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현외성, 2006:57). 사회복지와 사회운동의 조우(遭遇)는 한국 사회복지실천에 모종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그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어느 나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그림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와 사회운동의 조우현상은 사회복지에 사회복지운동을 포함하는 틀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닌다. 또 그렇기 위해서는 영역에 있어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보다 더 넓은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 2. 실질적 Theoria와 praxis의 연계

이론과 실천의 실질적 연계의 필요성은 또한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 나라의 실재이며, 십자가 사건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사랑의 증거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신학의 과제가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여 탐구해야 할 테오리아(theoria)라고 한다면, 사회복지학은 수평적인 인간 사랑의 프락시스(praxis)로 볼 수 있고, 이 양자가 십자가로 합류하는 것을 이상적인 모형으로 추론할 수 있다.”(이숙중, 2005:32).

사회복지학은 신학과 사회복지 즉, 신학적 이론(theological theoria)과 사회복지의 실천(praxis of social welfare)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이숙중, 2005:29).

교회사회사업은 과학만도 아니고 종교만도 아니며, 과학과 종교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이론적 준거들이 필요하다(박종삼, 1996:9).

위에서의 지적처럼 기독교사회복지학은 신학적 이론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실천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한쪽에서는 신앙과 사회복지를 전혀 실질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사회복지에 치우쳐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지니고 있는 실용주의적 성격인 과학적 이론과 기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신학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복지의 실천 등의 기술이 없는 기독교사회복지를 외침으로 신학과 사회복지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박종삼의 다음의 말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사업이라는 학문이 지나치게 실용주의적 성격(과학적 이론과 기술)을 갖게 되어 기독교적 조망의 학문적 맥락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학문에 관한 한 신학만을 끌어안고 타학문에 대해서는 신학과 전혀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종삼, 2000:13).

이러한 현실은 세인(世人)들로부터 “교회의 사회사업이 비전문직이라고 공격”(최무열, 2008:10)을 당(當)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 김영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회사업 기법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성직자의 헌신적 노력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에 대한 전문적 접근방법의 도입이 요망된다.”(김영모, 1986:12). 앞의 이러한 비판과 지적은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전문적 접근방법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말해주고 있다. 즉 실천과 이론의 실질적인 연계야말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존 스토트(John R. W. Stott)가 말했듯이 신학과 사회복지의 결코 불가분의 관계(inseparable)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partnership)라는 그의 지적은 참으로 옳은 것이다. 이는 신학과 사회복지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통전적(統全的) 치료(治療)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신학 없는 사회복지의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사회복지의 뿌리는 성서요, 사회복지의 뿌리는 신학이다. 따라서 뿌리 없는 나무는 결코 쓰러질 수밖에 없듯이 진정한 영성신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사회복지란 그 존재의 의미가 상실(喪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없는 신학 역시 존재할 수 없는 허구(虛構)에 불과하다(최무열, 2004:337).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김한옥은 기독교사회봉사신학에 대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a) 기독교봉사신학은 성경적 동기에서 출발한다. (b) 기독교봉사신학은 개신교 신학의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c) 또한 봉사신학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김한옥, 2001:186-188).<sup>12)</sup>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실천은 고난을 당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행위 주체자의 내면적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법성을 가지는 사회복지학적 방법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이웃에 대한 원조 또는 사랑의 행위는 오늘날 사회복지라고 하는 합법적, 사회적 매개체에 의하여 과학적 분석과 검토에 기초한 객관적 방법과 헌신적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크리스천은 사랑의 실천행위는 근대사회과학으로 거듭나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되어야 비로소 인격적이며 객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김성이 외, 2005:21)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일치하는 주장이다.

앞의 [그림 3] 사회복지관련 용어 그리드(grid)를 다시 주의해서 보면, 실천 위주의 사회사업(social work)과 이념 위주의 사회정책(social policy)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신앙(faith)과 학문(praxis, skill&technique)의 실질적인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사회복지의 위치는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에서 벗어나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로 이동해 가야할 필요성을 지닌다.

### 3. 지식의 종합을 통한 피조세계에 대한 전인 이해

“신앙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모든 인간을 다루는 학문 즉 의학이나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심지어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통전적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축적된 그들의 경험이나 인간적 지식, 그리고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론만으로 인간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진정한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최무열, 2004:339). 인간의 행동과 병리현상은 단순화함으로 해결되거나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구조적이며 매우 복잡적일 뿐 아니라 개체성의 특질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

---

12) 김한옥(2001:187)은 “사회봉사신학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간학문적인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봉사신학은 개신교적 동질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지 않으면 참으로 인간(전인적 인간)을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독교에서의 인간이해는 어떠한가. 과거 기독교 내에서도 인간을 이해할 때에 극단적으로 철저히 영적인 존재만으로 이해되기도 하였고 그 인간의 일탈화(逸脫化)된 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극단적으로 영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함으로써 철저히 영적 치료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인간문제에 대한 영적인 접근과 치료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근본적인 이해의 문제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영적인 인간 측면의 인간 이해만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접목의 필요성이 자연히 대두되게 된다.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의 의도적 나눔의 실천의 장으로 영적, 사회적, 심리적 치료의 장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간의 이해와 통진적 인간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영성의 바탕 위에서 실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와의 조화 속에서 보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또한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최무열, 1998).<sup>13)</sup> 위의 최무열의 주장을 하나의 공식으로 옮긴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 (신학적 접근)	+	사회복지 기술의 결합 (사회복지학적 접근)	=	완전한 인간이해와 치료
--------------------	---	----------------------------	---	--------------

사실 “서구에서 처음 도입된 사회복지의 이념의 시발점은 기독교의 사랑(agap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학문은 이론의 정립과정을 거치면서 그 원칙적 의도를 상실하고 철학(哲學)화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일반사회복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균등한 기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회복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다룰 수 없다. 인간의 삶이란 이러한 사회적, 정신적 요소 외에도 영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백형남, 2004:28). 일반사회복지의 문제점인 즉, 일반사회복지가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한다는 점과 더불어 기독교사회복지학의 문제점, 즉 사회복지실천 기술(technique & art)의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은 이숙종이 말하는 ‘지식의 종합’을 추구하여야만 한다.

지식의 종합은 인간이해의 공통개념, 가시적인 자연세계, 기술과 재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의 모든 활동, 인간의 영적인 경험의 대상이 되는 인간, 자연, 하나님과의 상호관계성에서 정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역의 지식의 소재(素材)인 자연세계의 지식-‘자연’, 인간의 모든 사고와 경험의 주체인-‘인간 자신’, 그리고 인간의 영적 세계의 대상인-‘하나님의 우주적 진리’가 종합하여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식의 종합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요소들이

13) 박종삼은 “사회복지(사회사업) 학문은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 과학적 관점의 학문이기 때문에 초자연적 현상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교회는 기독교 영성에 입각하여 모든 교회 내 사회사업을 영성으로 환원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성과 사회사업의 과학성 사이에는 상호 의심의 안목을 갖게 된다”(박종삼, 2004:15)고 지적한다.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와 인간의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신학과, 그리고 인간의 사회 환경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실천적 지식과 소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학의 통합과 합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이숙중, 2005:35-36).

메이요(L. W. Mayo)가 사회사업을 ‘영적 전문직이라고 표현’(Wilensky & Lebeaux, 1958:138; 남경현, 1972:7인용; 최무열, 2008:309재인용)하였던 것처럼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있어서 영성과 종교성을 포괄할 필요성(이현아, 2003:183-206) 등으로 인하여 전인적 인간 이해의 경우 단순히 일반사회복지학이 추구하는 상황적 인간(PIE: person in environment)을 뛰어넘어서 영성적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전인을 추구하여야 한다. 욕구(need)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욕구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적 욕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빈곤 등의 사회문제의 경우에도 사회적 심리적 빈곤을 넘어서 영적인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영적 차원에서의 접근 또한 피해야 한다. 이처럼, 보다 실질적인 지식의 통합을 통한 보다 충실하고 완전한 전인적 이해를 위해서는 바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이 필요하다.

#### 4.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징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지니는 학문적 특징을 통해 살펴보자. 김기원의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을 참고한다면 광의의 의미에서의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김기원은 자신의 글을 통해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다음을 제시한다(김기원, 2001:205).

첫째, 기독교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회복과 생명존중에 있다. 둘째,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실천방법은 하나님을 본받음(imitatio Dei)에 있다. 셋째,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규범 지향적(normative orientation)인 동시에 실천 지향적(practical orientation)이다. 넷째, 기독교사회복지학은 비(非)경험과학인 동시에 경험과학이다. 즉 최적(最適)경험과학(박종삼은 총체적 진리의 개념을 사용한다)이다. 다섯째, 기독교사회복지학은 역사과학이기도 하다. 여섯째, 기독교사회복지학은 현실세계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과학이다. 일곱째, 기독교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이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은 순수과학이라기 보다는 개발된 이론을 현실상황에 적용하는 응용과학이다. 여덟째, 기독교사회복지학은 학제적(學制的: inter-disciplinary)이고 종합학문적(綜合學問的: multi-disciplinary)인 특징을 갖고 있다. 아홉째, 기독교사회복지학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평가는 성서적인 기준과 사회과학적인 기준 양자의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열 번째,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가치중립적(價值中立的: value-free)인 학문이라기보다는 가치개입적(價值介入的: value-judgment) 학문이라는 점이다.<sup>14)</sup> 위와 같이 김기원은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경험과학이면서도 비경험과학인,

14) 김기원(2001:212) 교수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종교 편향적’(religion-oriented)임을 지적한다.

최적경험과학이라고 함과 동시에 학제적이면서,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성격은 필연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다른 학문들과의 통합(연계)을 추구해야만 하는 학문이라는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최적경험과학인과 동시에 종합학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학을 지향하여야 함을 말한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을 만약 주류 학문인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경험과학으로만 인식할 경우에는 정신적 측면, 즉 계량화하고 수치화할 수 없는 영적 영역에 대한 접근은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거나 시도나 수용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지니는 최적경험과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IV. 결어

현실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ㄱ)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반응, (ㄴ) 주류 학문에 대한 편승의 정도, (ㄷ) 연구자들의 학문적 기반의 다양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개념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용어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독교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와 사회목회, 사회선교와 같은 (실천)신학에 근거한 개념들은 신학적 이론에 충실하여야 함을 말해주고, 더 나아가 교회사회사업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사회복지학이 단순히 신학적 이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사회복지의 실천기술과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자세에 있어서 소극적임과 더불어, 실천 중심의 사회사업과 이념 중심의 사회정책을 포괄하지 못하는 기존의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으로는 한계를 지니므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 입각한 광의의 적극적 기독교사회복지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복지영역의 확대되어지고 있고(복지운동과 복지의 세계화), 실질적으로 신학적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의 연계의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최적경험과학(“총체적 진리”)으로서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지니는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신앙과 사회복지의 적극적 통합 추구하면서 실천적 사회사업(social work)의 기술과 이념적 사회정책(social policy)을 수용할 수 있는 광의(廣義)의 적극적(積極的) 기독교사회복지를 추구해야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 (2005). “독일교회의 사회사업참여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실천적 사례”. 『교회사회사업』 3.
- 권경임 (2004). 『불교사회복지실천론』. 서울: 학지사.
- 김기원 (2001). “기독교사회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장신논단』 9.
- 김덕환 (2002). “독일의 기독교 사회복지의 조직화와 유토피아 사회의 현실적 추구”.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서울: 생각하는 나무.
- 김동배 (1993). “기독교 사회봉사의 비편적 고찰”. 『연세사회복지연구』 창간호.
- 김동춘 (2003). “교회적 디아코니아와 국가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회적 대안인가”. 『성경과 신학』.
- 김상균 외 (2007). 『사회복지개론』. 개정2판. 파주: 나남출판.
- 김성이 외 (2005). 『교회사회복지의 철학과 방법』. 서울: 나눔의집출판사.
- 김영모 (1986). “종교와 사회복지”.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
- 김한옥 (2001). “기독교 사회봉사신학 정립의 필요성”. 『성경과 신학』 29.
- 남경현 (1972). “기독교의 사회복지에의 공헌”,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2.
- 박종삼 (1996). “한국 교회사회사업학의 정립과 종교사회학”. 『연세사회복지연구』 3.
- 박종삼 (2000).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사업학과 교육”. 『교회사회봉사연구의 방향성 모색』 한국교회사회봉사연구소워크샵 자료집.
- 박종삼 (2002). “교회사회사업”,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학지사.
- 박종삼 (2003). “교회사회사업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방안”. 『교회사회사업』 창간호.
- 박종삼 (2005). “기독교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와 디아코니아 신학”,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기독교 생명운동』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 박종삼 외 (2004).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학지사.
- 백형남 (2004).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의 사회복지 정체성과 교회의 사회복지 역할 연구”. 석사 학위논문. 목원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
- 손병덕 (2007).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 Calvin의 하나님, 교회,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교회의 사회복지사업 실천에 주는 교훈”. 『신학지남』 291.
- 양희택 (2003). “교회사회사업 Program 교육 욕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회사회사업』 창간호.
- 오정수 (1997). “사회복지학 접근방법의 이중구조와 종합적 접근 전망”. 『상황과 복지』 2.
- 유장춘 (2002).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8.
- 이숙중 (2005). “신학과 사회복지학의 합류의 중요성과 대사회적 과제 및 전망”. 『신학과 사회』 19.
- 이재서 (2000). “에덴의 복지와 그 신학적 의미: 기독교사회 복지의 신학적 이해”. 『충신대논총』 19.
- 이태수 (1999). “한국사회복지의 동향과 종교사회복지의 방향”. 『한국종교사회복지대포럼의회 제2회 심포지엄 자료집』.
- 이현아 (2003). “영성과 종교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실천”. 『교회사회사업』 창간호. 183-206.
- 이혜경 (1996). “한국사회복지학의 정체성”. 『연세사회복지연구』 3.
- 장인협 (1996).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혜정 (2004). “한국의 기독교(교회) 사회복지사업의 과거와 현재”. 『호서신학』 11.
- 정원범 (2005). “교회의 사회봉사적 책임”. 『신학과 문화』 14.
- 최경구 (1993).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연구회 편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무열 (2004).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개정판. 서울: 나눔의집.
- 최무열 (2008). 『사회복지의 뿌리를 찾아서-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 서울: 나눔의집.
- 현외성 (2006). 『사회복지운동』. 파주: 집문당.
- 황순환 (2001).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선교신학적 접근”. 『신학과 문화』 10.
- 홍금자 (2007).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정체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40년사』.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Canda, Edward R. and Furman Leola Dyrud 박승희, 이혁구 공역 (2003). 『종교사회복지실천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Davis, C. Anne (1983), “The Practice of Urban Ministry: Christian Social Ministries”, *Review and Expositor* 80. 523-536.
- Friedlander, W. A. & Apte, R. Z. (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arland, D. S. (ed.) (1992),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St. David, PA: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s in Social Work. 이준우 역 (2001). 『교회사회사업』 서울: 인간과 복지.
- Lehner, Markus (1997), *Caritas, Die soziale Arbeit der Kirche: Eine Theoriegeschichte* Freiburg.
- Moberg, David O. (1984), *The Church as a Social Institution: The Sociology of American Relig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 Popper, K. R (1972), *Objective Knowled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use, M. (2007), “리처드 도킨스와 진보문제”, In 『리처드 도킨스: 우리의 사고를 바꾼 과학자』 서울: 을유문화사, 201-225.
- Watkins, Darrel R. *Christian Social Ministry: An Introduction*. 박종욱 역 (2003).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베드로서원.